



소리주보

은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성서 주간
2020. 11. 22. (가해) 제2242호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싸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이다.” (마태 25,31)



『최후의 심판』, 안 프로 부스트, 1505년경, 독일 함부르크미술관 쿤스트할레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누가 진짜 왕인가?



성서사도직 담당 | 여한준 룻젤로 신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했습니다. 그토록 긴 세월을 이집트 파라오를 자신의 왕으로 섬기며 산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느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 자유를 주시고, 시나이산에서의 계약을 통해 당신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40년간 광야의 여정을 보내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하느님이 참된 왕이심을 알고 그분의 말씀(십계명과 법규정)을 지키며 그분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과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진짜 왕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렇게 드러난 진짜 왕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시에 '나는 평생 누구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왔는지' 명백하게 밝혀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 사람들은 세상 창조 때부터 준비된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렇지 않고 진짜 왕이 아닌 가짜 왕을 섬긴 사람들, 자기 자신을 왕이라 착각하거나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를 섬기며 살았던 사람은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불 속으로 들어가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날에 명명백백히 밝혀집니다. 이것이 진짜 왕을 섬긴 사람과 가짜 왕을 섬긴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한 주간의 '성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전례력으로 한 해를 마감하며, 지난 시간 하느님의 말씀에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되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세상과 물질과 죄와 이기심이라는 노예로부터 탈출시켜 하느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최고의 안내자입니다. 성경의 안내를 따라가면 누가 참된 왕인지, 그래서 내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성서 주간을 살아가며 우리도 하느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분의 백성으로 서서히 변해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궤문**

토기 이야기

대한민국 명인 백자(제12-365호) · 교구 생태환경위원 | 김대철 바오로

쓰레기와 플라스틱이 판을 치는 요즘 시대에 도자기와 항아리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인류는 신석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착된 삶을 선택했고, 농경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잉여 생산물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먹거리를 저장하고 담아두기 위해 그릇이 필요하므로 토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류가 맨 처음 토기를 만들었던 한테(노천) 가마는 신석기 시대로, 보온을 위해 얇은 옹덩이를 파고 모닥불을 피워 생활했던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점질의 흙을 빚어 500~800℃ 정도의 연질 도기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청동기시대에 청동을 합금, 주조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서 1000℃ 정도의 고화도의 경질 토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00년 전 중국은 1250℃까지 올릴 수 있는 번조 기술을 발견함으로써 물을 흡수하지 않는 자기 즉, 청자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9세기경 이웃하고 있는 중국의 월주요를 통해 청자의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중국 청자의 영향을 자체 생산으로 연결시켜 고려적 조형과 투명한 유약 기술로 우리만의 독자적인 상감청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후 몽골족의 침입으로 송은 막을 내리고 원나라가 들어서면서 몽골의 흰색 숭배 사상이 백자를 탄생시켰습니다. 백자의 주원료인 고령토(카오린 99%) 광산의 발견으로 고온에도 견디는 자기질의 흰 백자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청자와 백자가 왕실이나 양반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옹기는 계급을 초월하여 누구나에게 꼭 필요한 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7세기 철화백자 가마터에서 옹기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질그릇 표면에 약토를 입힌 옹기는 통기성이 좋아 서민들의 생활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신유사옥(1801년) 이후 깊은 산속으로 숨어든 천주교 신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 중요한 역사이기도 한 옹기는 신자촌을 짓고 생계와 자신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켜준 신념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님은 “옹기는 먹는 것도 담지만, 더러운 것도 담는다. 그러니 우리도 어떤 것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살아가라고 하셨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요즘 일회용 간편 음식 포장과 편리한 쇼핑문화가 불러오는 과도한 쓰레기 문제를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본다면 우리의 깊은 역사와 우수한 기술을 가진 도자기 사용을 많은 이들에게 권해보고 싶습니다. **김대철**

현재를 살아갑시다

교구 병원사목차장 | 정진섭 도미니코 신부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은인들을 기억하고 동시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위령 성월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병원사목을 하면서 죽음의 순간을 자주 접하게 되어서 죽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암 선고를 받는 그 순간 환우분들은 덜컹하고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우분들은 분노하기도 하고 거부/부정하기도 하며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환우분들은 자신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죽음이 자신 앞에 다가오자 여러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환우분들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한 환우분은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합니다. 다른 환우분은 아내에게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 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환우분은 아이들과 잘 놀아주지 못하고, 커 가는 순간순간을 함께해 주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합니다.

환우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환우분들이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다 그 순간을 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현재를 잘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환우분들은 그 순간, 현재를 잘 살아오지 못한 것에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아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은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면서 우리는 죽음을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은 우리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현재를 후회와 미안함, 아쉬움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뿌듯함, 보람으로 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요?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 그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최창주 마르첼리노 (1749~1801년)

‘여중’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었던 최창주(崔昌周) 마르첼리노는 경기도 여주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40대 초반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이후 그는 온 가족을 입교시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으나, 1791년의 신해박해 때 체포되어 광주로 압송되었다가 배교하고 석방되었다. 1840년 전주에서 순교한 최조이 바르바라는 그의 딸이다.

이후 마르첼리노는 자신이 지은 죄를 깊게 뉘우쳤고, 순교의 은총을 입어 죄를 씻어 낼 방도를 구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는 가족과 이웃 교우들을 힘써 권면하였으며, 두 딸을 모두 교우에게 출가시켰는데 그중 하나는 1801년 여주에서 순교한 원경도 요한의 아내이고, 다른 하나는 1839년 전주에서 순교한 신태보 베드로의 며느리 바르바라이다.

여주 지방에서는 1800년 부활 대축일에 다시 박해가 일어났다. 그는 한양으로 피신하기로 작정하고 길을 나선 지 얼마 안 되어 순교를 다짐했던 이전의 마음을 되찾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으며, 그날 밤에 체포되어 여주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관장은 즉시 최창주 마르첼리노에게 형벌을 가하면서 알고 있는 천주교 신자를 밀고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러나 그는 “천주교에서는 누구에게라도 해를 끼치는 것을 금하고 있으니, 한 사람도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밀고하기를 거부하였다.

1801년에 들어 신유박해가 시작되자, 감사는 옥에 갇혀 있는 신자들을 다시 끌어내 형벌을 가하면서 배교를 강요하였다. 이때 마르첼리노는 신자들을 대표하여 “모든 사람들의 임금이시며 아버지이신 참 천주를 알고, 그분을 섬기는 행복을 받았으니, 저희들은 그분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점점 더 가혹해지는 형벌 속에서도 최창주 마르첼리노는 동료들과 함께 온갖 유혹을 뿌리치고 서로를 권면하였다. 조정에서는 ‘고향으로 돌려보내 처형함으로써 그곳 백성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마르첼리노는 동료들과 함께 여주로 압송되어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01년 4월 25일(음력 3월 13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52세였다.

경기 감사가 조정에 보고한 마르첼리노의 최후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최창주는 (천주라는 큰 부모가 있다 하여) 제 아버지를 진정한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아버지의 이름을 잊어버렸다고 말할 정도로 아주 흉악합니다. 또 모진 형벌을 당하면서도 교회 서적이 있는 곳을 대지 않았고, 끝내 (천주교 신앙을 믿는) 마음을 고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인륜과 도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달가운 마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일겠다고 하였습니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예제 34,11-12,15-17	제 2 독서	1코린 15,20-26,28	복 음	마태 25,31-46.
화 답 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향기가 되어~

예쁜 엽서 & 성탄 카드 전시회

문화홍보국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게 지내온 모든 분들께 격려와 위로,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나누고자 코로나 극복 『예쁜 엽서&성탄카드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접수: 11.8(일) ~ 27(금) / **전시:** 12.14(월) ~ 25(금) 교구청 일대 /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053)250-3046~9

※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 및 11월 8일(연중 제32주일) 주보 6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품해 주신 작품 가운데 우수작은 별도로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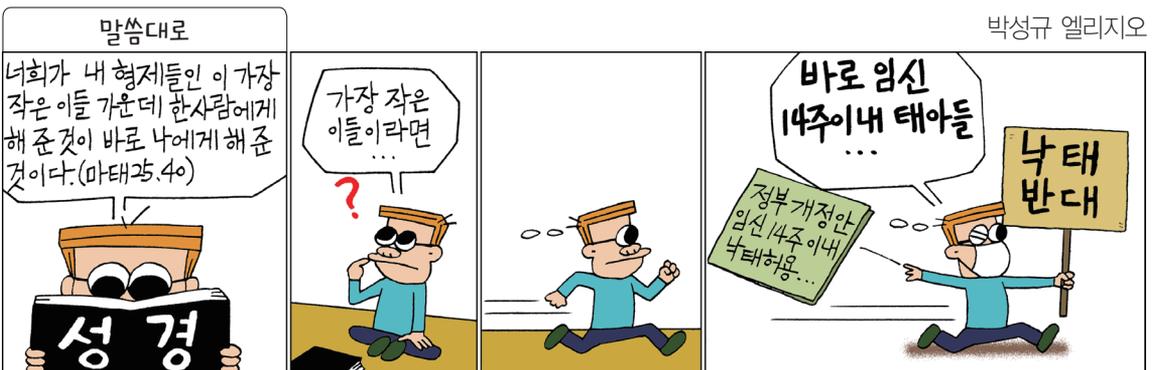
대구주보 2021년 상반기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원고 모집

주제 및 내용 | 입교, 선교 등 기존의 신앙 수기 형식이 아닌 성경 말씀을 기초로, 신앙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상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체험한 소소한 이야기

형식 및 분량 | 수필형식의 글로 분량은 한글 12포인트 크기 A4 1페이지 분량

기간 및 방법 | 2020년 12월 31일(목)까지 / 대구주보 이메일 jubo@dgca.or.kr 또는 방문 접수 (매월 대구주보 4면에 게재될 예정이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과 궁금하신 점은 교구 문화홍보국 주보담당 053)250-3048~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1월 23일(월) 10:30 범여성당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11월 24일(화) 14:00 신암성당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1월 23일(월) 11:00 도량성당		11월 24일(화) 19:30 다사성당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월 23일(월) 11:00 계산성당		11월 25일(수) 10:00 죽도성당
한티순교자 현양후원회 월례미사	11월 28일(토) 11:00 순례자성당		11월 25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예수고난회 성소 모임

일시: 12.5(토) 18:00~6(일) 11:00
장소: 서울 돈암동 수도원
문의: (010)6804-4904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성소자 초대

일시: 전화 상담 후 결정
대상: 국내외 전교와 봉사에 관심 있는 39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강피아 수녀, (010)3679-7198

해님이 피정

일시: 12.30(수) 16:30~2021.1.1(금) 13:30
장소: 성베네딕도 왜관피정의집
비용: 24만원, 농협 301-0087-0776-61 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54)971-0722 / (010)6791-0071

교육 | 모집 | 기타

C.P.E.(임상사목교육) 교육생 모집

일시: 1월 중순~5월 초 10:00~17:30

매주 화, 목, 토요일 그룹(선택)
대상: 자신-타인 돌봄에 관심 있는 분
비용: 80만원(선착순 8명)
문의: 성바로CPE센터, (010)4143-5508

대구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발성과 합창: 월, 목 14:00 / 19:00
대구CEO합창단: 화, 수 14:00 / 19:00
장소: 평생교육원(용산역 도보 5분 거리)
문의: (010)3512-1565

코로나로 임시 정원 5명(기초이론포함)
가톨릭상지대 2021학년도 수시2차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수시2차: 11.23(월)~12.7(월)
문의: 교무입학처, (054)851-3021~3
<http://ipsi.csj.ac.kr>

티없으신마리아성심 재속3회 지원자 모집
일시: 12.22(화) 9:30, 꾸르실료교육관
대상: 성모님을 사랑하는 55세 이하 신자
준비물: 교적,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문의: (010)8503-0228

35회 글로벌 온앤오프 국내 영어캠프

일시: 2021.1.2(토)~30(토) 4주
대상: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3학년
주최: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전인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670-5959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2대 반세기, 건강한 관절, 척추

백두병원

SINCE 1975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백억두 아오스님, 배성근 베드로 유천치안센터 옆 T. 425-5919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대학병원급 3.0T MRI, CT 공단검진 지정병원 / 위, 대장 내시경

곽재혁신경과

D.R. KWAK'S CLINIC OF NEUROLOGY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조교수
신남역(청라안덕역) 9번 출구 척담병원 4층

053-255-2211

아트도서관

국내 첫 미술전문 도서관
도서관 · 갤러리 · 미술관 · 북카페
12만 여권의 도서, 수백여점 미술품 감상 (주차장 有) 아트도서관

관장 하루완 경일시메온 010-3588-5252
정순교 세 실 리 아 010-6584-5252

(주)한투어

HANTOUR 한투어

성지순례전문

☎ 053)427-7090

안상덕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www.piumclinic.co.kr

이애현 피음산부인과 의원

여성 건강 전문 병원
원장 이애현(크리스티나)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 여성 성형, 비만클리닉
보험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요실금클리닉

상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 원장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치질/내시경(위·대장) 건강검진

산격시장앞

☎ 053-959-7175
010-9597-7175

이데오피스·문구

Canon 흑백복사기 60,000원/월
Canon 컬러복사기 90,000원/월
복사용지·문구류 무료배송

흑백복사기(A3) 중고 기증 가능
053)756-0949 대표 황현진(필립보)

은진종합건설

리모델링

보일러, 수도누수, 방수
페인트, 타일, 창호
지붕공사, 전기누전, 막힌곳 "뽕"
정상진(그라시아노) 권순여(그라시아)

010-3526-7401

위령성월 전대사 공지

교황청 내사원 교령에 따라 11월 한 달간 위령성월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유가홍(루도비코) 신부
1964년 11월 22일
- 이임춘(펠릭스) 신부
1994년 11월 24일
- 이상호(베드로) 신부
2011년 11월 26일
- 박형진(아우구스티노) 신부
2013년 11월 27일

행사 | 모임

바뇌의성모기도회 월례미사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이다.
일시: 11.26(목) 13:00 기도
14:00 미사
장소: 제1대리구청 1층 강당

작은예수의집 가족 작품 전시회

장애인 그룹홈 작은예수의집 가족들의 작품전시회에 초대합니다.
일시: 12.7(월)~13(일)
장소: 박물관 휴르(범어동)
문의: 652-6740

교육 | 모집

12월 가나 강좌

일시: 12.13(일) 10:00~13:30(시간엄수)
장소: 교구청 내 별관 대화합실
참가비: 2인 3만원(사전 신청) 무료주차
신청: 본당 사무실 / 마감: 11.27(금)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제대꽃꽂이 봉사자를 위한

아카데미 제13기생 모집
개강: 11.24(화)
문의: 전례꽃꽂이연구회, (010)2780-4535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 모집

전입학 설명회: 12.5(토) 14:00
겨울진학 예비학교: 2021.1.9(토)~10(일)
대상: 초6~중1
문의: (054)338-0530

대구가톨릭음악원 전공반

(오르간, 성악, 지휘, 시편) 모집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채용 | 안내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간호사 채용

위치: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440(읍내동)
문의: 간호과, 320-2750
http://www.tcmch.co.kr

SOS프란치스카의집 직원 채용

분야: 요양보호사
서류: 이력서 접수(자사양식)
문의: 986-2077
http://sos-silver.or.kr

대구가톨릭요양원 요양보호사 채용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58세 이하
문의: 616-2141 / 615-2141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인규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2021년 대구주보 광고 신청 안내

- 주보광고접수 : 11.26(목), 대건관 2층 가정복음화국 회의실
- ※ 문자메시지로 보내드린 광고접수시간에 맞춰서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 광고비 전액 계좌이체 (광고접수일부부터 익일까지)
- ※ 당일 광고접수자는 기존 광고접수가 끝나고 난 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교구 문화홍보국, (053)250-3048~9

일월매트총판 | 온 수 매 트
한일 의 료 기 | 게르마늄매트
소금좌욕기 | 전 자 제 품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010-9804-8008
유통단지로 45 전자관 1층 239호

공정직영도매(동고령IC)
삼우쌍크
이용해(스테파노) 박현미(마리아)
전시장 : 대구 용산점, 칠곡 구암점
싱크, 불박이, 신발장, 각종수납장 인테리어 및 주택수리
010-2866-0277 | 010-3336-9567

www.theopen-daegu.co.kr **환철! 출출게 하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 신속 확장 이전 —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증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 루카
T. 555-5520 죽전역 4번 출구

Rex Diamond
보석 전문점 더 렉스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지·감사선물·프로포즈 반지)
대표 **임철우(마리아)**
♥ 롯데백화점 대구역점 맞은편 왼쪽방향 ♥
공영·진흥추진장 무료 | 영업시간: 11:00~19:00
☎053)428-7989 | 010-4439-9991
♥ 예쁜 선물 증정 ♥

발아정형외과에서 발 건강의 **씩**을 틔우세요.
발아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발목내시경,
족저근막염, 시간신경증, 평발치료.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발발 친구)
수성구 황금내거리에서 롯데캐슬방향 500m

가톨릭피부과 의원
CATHOLIC SKIN CLINIC
57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대표전화 ☎ 053) 320-2000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히 만 철(바오로)
하 중 순(요안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헤렌 디자인하우스
프리미엄 디자인가구
박성용(알벨토) 대구시 북구 엑스코로 10
권나경(수산나) (엑스코 가구를 지하2층)
Cell : 010 7766 3198